

# 환경사업의 代父

이달우(李達雨) 회장 -下-1-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 5. 한국형 전기집진기로 아시아를 제패하다

한국코트렐(주)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여, 1990년 '대만 전력 Talin 화력발전소', 1992년 'Hshinta화력발전소', 1993년 'Shen-Ao화력발전소' 전기집진기 설비 등을 계속적으로 수주, 대만의 전기집진기 시장에서 US\$ 8,300만 \$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그 외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중국 등에 US\$ 약 2,400만 \$의 전기집진기 설비 공사를 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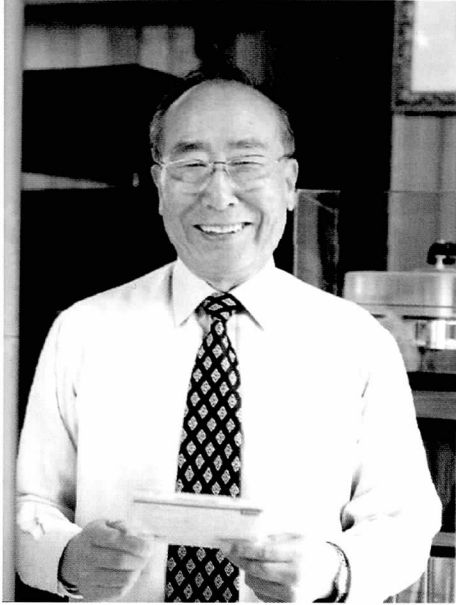
1998년에는 이제까지 국내 업체가 공략하기 어려웠던 일본의 발전소 건설공사에 전기집진기를 수주하게 되었다. 즉, '신일본제철'의 ITP사업인 KAMAISHI POWER PLANT의 전기집진 설비를 수주, 설치한 것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이달우 회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일대에 전기집진기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전력' → '동력' → '생산' → '산업발전' → '환경오염'이라는 등식을 전기집진기로 → '산업발전' → '공해발전' → '환경오염 저감'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이

다. 즉, 이달우 회장의 공적 제1호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달우 회장의 전기집진기 개발연구는 끝이 없었다.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고효율 한국형 전기집진기 개발에 몰두한 결과 1994년 드디어 한국형 전기집진기 개발에 성공한다. 다음 해인 1995년에는 전기집진기 Rapper Controller를 개발하여, 전기집진기의 주요 부품 99% 국산화에 성공하여, 약 600억 원의 수입 대체효과를 이뤘다.

이후, 1996년 PPCP(펄스 플라즈마 발생기를 이용한 가스 및 분진 동시제거 기술), 전기 여과포로 집진기 등을 개발하여, 국내의 전기집진기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 올렸으며, 1997년 '스트리머코로나 방전에 의한 플라즈마 전리기체 발생장치', '스트리머코로나 방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처리장치', '코로나 방전에 의한 정전여과포 집진 방법 및 그 장치' 등을 개발하여, 전기집진기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방지, 대책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것은 환경산업 기업인은 물론, 일반 사업가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 6. 이달우 회장의 공적은 미래가 갈채를 보낼 것

즉, 사업으로 돈을 벌어,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사회와 국가를 위한 사업을 펴, 돈을 벌어, 그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더욱 가치 있고, 빛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평생을 전기집진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온 이달우 회장은 1996년 국제 학술단체인 국제 전기집진학회 이사로 추대되었으며, 같은 해, 한국전기집진학회 회장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이런 모든 공적은 1989년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시작으로 1992년 '5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1993년 제1회 '환경대상 과학기술상' 1998년 'International Fellow, International Society for Electrostatic Precipitation' 수여, 1999년 '은탑 산업훈장', 2001년 서울대학교로부터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낸 해, 서울대학교, 한국공학한림원, 매일경제신문사가 선정한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에 이달우 회장을 선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52년 '조선전업(주)'에 입사하여, 전기와 인연을 맺은 지, 55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 이달우 회장은 분명, 전기와 같이 유용하고, 정확하며, 빠른 성공의 인생을 살아왔다.

이달우 회장은 분명, 우리 모든 환경인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환경사업가의 대부로서 존경 받고 있다. 아니, 지구의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한 공로는 먼 훗날, 후손으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을 것이다.

(계속)

